

가계부채 옥죄도 중금리 대출 '훨훨'… 더 센 규제 오나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 비중 증가
인터넷은행선 이벤트·혜택도 제공
중저신용자 부실 가능성 시한폭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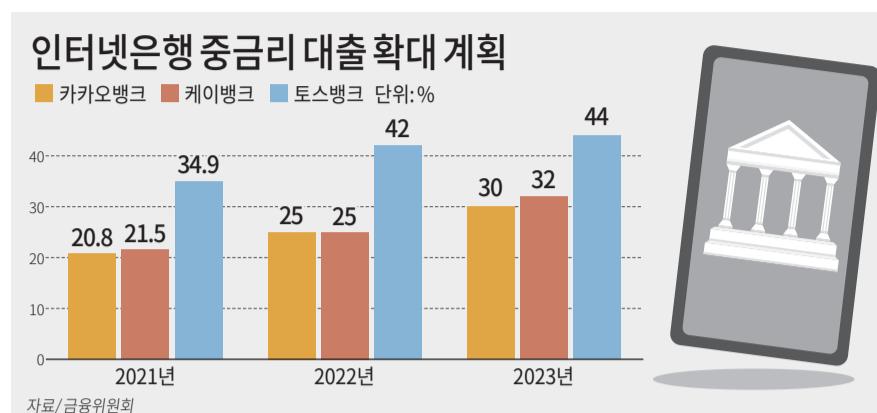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중금리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중금리 대출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대상인 만큼 부실 가능성이 커 추후 금융당국의 규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시중은행, 고소득자 대출제한…중금리대출 늘어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p) 증가한 12.7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18%와 비교하면 7.56%p 증가한 수준이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시



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한은 연 6.5%다.

반면 고신용자 대출비중은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달 4%대 미만 신용대출 비중은 81.26%로 전달(83.4%) 대비 2.14%p 줄었다. 지난해 말 91.06%가 고신용자 대출상품인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 배경에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투자)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은 고소득자에 속하는 전문직 대출상품의 한도를 낮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최대 2억원이었던 전문직 전용대출 상품 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로 줄였다.

하나은행은 연초 의사·한의사 대상 ‘닥터클럽대출’과 변호사 대상 ‘로이어 클럽대출’ 등의 기본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연소득 한도를 일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때문에 연봉이 많았던 고소득자 대출은 줄고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 “올해 중금리 대출 목표

치 문제없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도 중금리대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올해 말 각각 20.8%, 21.5%에서 25%로 제시했다. 토스뱅크는 34.9%에서 내년 42%까지 늘릴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고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중저신용고객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중신용 플러스대출, 중신용 비상금대출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대출액은 6월 867억원에서 7월 1140억원, 8월 2674억원으로 증가했다. 3개월 간 공급액은 5020억원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이 12%를 넘어선 만큼 목표치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도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두 달 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내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12개 월째 이자를 납입하면 다음 날 바로 돌

려주는 방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상환능력이 좋은 고객을 판별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중금리대출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도 오는 10월 출범시기에 맞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토스 금융플랫폼을 통해 쌓인 금융정보, 통신비 납부실적, 자산규모 등을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처럼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표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대상도 한정적인 만큼 부실이 확대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를 이용하다가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한도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부실이 높은 만큼 규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카카오엔터, 연예 매니저먼트 사업 키운다 플레이엠X크래커 합병 법인 출범 가시화

멀티 레이블 체계 고도화 추진
합병법인 사명·절차 추후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연예 매니저먼트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산하의 음악 레이블사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소속 연예기획사의 유명 연예인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를 통해 연예 사업에서의 몸집을 키우는 모습이다.

◆ 합병·지원으로 몸집 키우는 카카오 산하 레이블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의 음악 레이블 자회사인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와 크래커엔터테인먼트가 통합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플레이엠과 크래커 사이의 합병은 그동안 추진해 온 멀티 레이블 체제 고도화의 일환이라며, 합병 법인의 사명과 세부 합병 절차는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사업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지



만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두 레이블 사가 통합하면서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걸그룹 위주의 아이돌을 제작하던 플레이엠과 보이그룹 위주던 크래커가 합병되면서 기획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합병으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 독보적인 음악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각 레이블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밀하게 협업해 강력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고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확장하는 등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며, 음악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카카오엔터에 인수된 안데나가 유재석과 계약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안데나가 계약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100억 이상으로 추정했었다.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중소기업 규모인 안데나를 지원해 유재석과 계약했다는 말들이 나왔다.

안데나는 당시 유재석 영입을 발표하며 “안데나가 지난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음원 플랫폼 확보한 카카오

카카오엔터가 멜론과의 통합함으로써 소속연예 기획사들의 카카오엔터의 음원 매니저먼트 사업과의 협업 시너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엔터는 멜론컴퍼니와의 합병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지난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엔터는 스타쉽, 플레이엠, 플렉스엠, 크래커 등 산하 레이블을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1만2000곡의 음원을 기획, 제작하며, 총 7만여 곡의 음원 유통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다. 멜론을 통한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엔터를 통한 연예 매니저먼트 사업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미 거대 기획사가 장악하고 있는 연예 사업으로의 진출은 비교적 논란이 덜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들이 진출해있는 음원, 엔터 시장에서 카카오가 진출한다고 골목상권 침해라고 지적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회사간 합병이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모 “ICT 규제, 유연하게 만들어야”

〈KT 대표〉

KT UN서 감염병 관리 리포트 발간



KT 구현모 대표가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국제연합(UN) 브로드밴드위원회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ICT 및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제목의 워킹그룹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KT는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로드밴드위원회 가을 정기총회에서 리포트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우수 사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얻은 가치 있는 교훈 ▲향후 발생 가능한 팬데믹 극복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사항 등이다.

브로드밴드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공동 주관하고 UN이 지원해 2010년 출범한 비상설 국제기구다. 각국 정부, 정부 및 정책기관 고위관료, 글로벌 ICT 기업 최고경영자(CEO), UN 및 ITU 등 국제기구 대표, 학계 저명 인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구현모 대표가 유일한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구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는 감염병 관리 워킹그룹에는 르완다 폴 카가메 대통령, 화웨이,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16명이 참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각 국가의 대응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KT는 글로벌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년간 리포트를 작성했다.

구 대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ICT 활용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규제를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공유와 국가간 정책 조율을 위한 글로벌 민관 협동 감염병 대응 관리 방식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19개 분야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며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